태안군, 마을어장 재생사업…바지락 생산량 확대 기대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해역에서 지난 12일 태안군이 모래를 살포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충남 태안군은 13일 근소만 소원해역에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소만에서 대규모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진행되기는 처음이다.태안군은 소원해역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기물 20톤을 수거하고, 지난 10~12일 파도·법산·신덕·송현 등 4개 어촌계 어장 10㏊에 모래 2100㎥를 살포해 평탄화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장 재생사업에 응모해 근소만 재생사업 예산 50억원을 확보하고 기본·실시설계를 마쳤다.태안군은 오는 7월까지 소원해역 30㏊에 1만㎥의 모래를 살포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뒤 내년 5월까지 바지락 종자 방류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500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추가로 수거해 어장 환경을 재생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태안군 수산과 팀장은 “소원해역 어장 환경이 악화해 바지락 생산량이 약 30% 줄었다. 소원해역은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처음이어서 수산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애초 5개 어촌계가 있는 근흥해역까지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신청했는데 소원해역만 선정돼 아쉽다. 계속 재도전해 근흥해역 어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어촌계원들이 공동어장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다. 태안군 제공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지에서 쓰레기가 유입하거나 오랜 양식으로 오염물이 퇴적해 어장의 환경이 악화하면 마을 어촌계 단위의 정화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어, 만(灣) 단위로 대규모 해역을 정화해 양식 수산물의 생산 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